

말씀의 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3장 18-21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공동체와 심령 속에서 펼쳐지고 역사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특징들이 숨어있습니다. 오늘 누가 복음에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마태 복음과는 다르게 안식일 논쟁이 있는 다음 갑자기 나온 이야기 같이 여겨지지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이 크게 자라고, 작은 것이 크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눅 13:19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
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본문에서 사람에는 '명사 남성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씨를 가져다가 뿌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 크게 자라나서 영향력을 끼치는데 두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그 겨자씨를 심고 자라게 하시는 곳이 "자기 채소밭에 in his garden"입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는 작은 겨자씨가 3미터 정도까지 되는 나무로 쑥쑥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밭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단순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되지 못한 교회에 주님이 씨를 뿌리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지극히 작은 믿음의 사람도 지극히 작은 약속도 주님의 밭인 공동체에 뿌려지기만 하면 쑥쑥 자라고 빠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된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새들이 깃든다는 말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밭이 된 교회에는 성령께서 은혜의 단비를 항상 내려주시고 관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 밭은 주님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씨앗들이 계속 심겨지고 선포되는 주님의 밭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온전히 주님께 속해야 합니다. 왜 은혜가 없는가? 왜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을, 약속을 심지 않으시는가? 왜 설교가 안 들리고 믿음도 안 자라나고 변화도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심겨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자신에게 속하여, 실상은 주님에게 속해있지 않은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심령을 주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은 그전에 내 밭에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잡초와 쓰레기들을, 내 안에 우울함, 복잡함, 걱정 근심, 알 수 없는 불안... 등으로 지저분 했던 것들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심령 밭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밭을 피로 값 주고 사신 다음부터 본격적인 관리를 하시며 좋은 씨앗들을 심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도록 가꾸시는 것입니다.

둘째,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13:20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서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룩을 가져다가 부풀게 한 사람,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기에 '여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통 안에 뿌려서 부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복음의 사역을 위탁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관 건물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 대사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대사관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행정 문제를 대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대사관, 천국의 대사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교회에서 성찬은 하늘나라에서 위탁받은 위대한 사명이며,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과 결신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위해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 큰 것입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은 가르침을 뜻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차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 성령께서 보증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심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고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 누룩(가르침)은 여자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뿌렸습니다. 교회는 자기 스스로 교훈을 만들어서 임의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인이 누룩을 가져다가 뿌린 곳은 가루 서 말이었던 것입니다. 통밀알이 아니었습니다. 가루가 되어있을 때 누룩을 뿌려도 변화가 되는 것이지, 통밀 알에는 누룩을 아무리 뿌려도 기대하는 변화의 역사를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부서진 심령, 은혜 받을 준비가 된 부서져서 하나가 된 공동체에 누룩을 뿌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에 등장하는 소제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곡식 제사는 고운 가루였습니다. 부서져야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4: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된 이유는 마음이 강퍽해서,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복음 전함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과 섞이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고 부서져있지 못해서 들은 말씀(누룩)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화합(결부)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쉼게란누미(συνκεράννυμι)인데 συν(함께) + κεράννυμι(혼합하다)의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다른 물질이 완전히 하나 되어 섞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아멘'하고 온전히 받아들여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잘 빻아진 가루처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 항상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섞이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놀랍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016. 2. 21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2. 21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5:11~24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찾으시는 아버지"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